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왜 하나요?

송혜원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무려 1,300만 관객동원이라는 흥행신기록을 세운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미군기지에서 무단방류한 폼알데히드에 의해 오염된 생물이 커다란 괴물로 변하여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나오는 폼알데히드는 건축자재에 많이 쓰이고 있으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이다.

굳이 영화를 예로 들것도 없이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 세수할 때 쓰는 비누, 각종 화장품 등 우리는 화학물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35,000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용도에 맞게 쓰인다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마치 영화속 괴물처럼...

이처럼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산

업현장에서 유통(제조, 사용, 수입, 수출 등)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자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이다.

이는 1996년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국제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 및 위해성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1999년부터 매 4년마다 시행하였으며 올해가 3회째이다.

이러한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는 배출시설 설치를 한 조사대상 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사업체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동차 공업사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900개 이상이 조사대상이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 것을 감안하여 조사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자 찾아가는 환경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3월초부터 화학물질 유통량조사표 작성 교육을 지역별로 7차례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에 참여한 사업체 대부분이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조사자체가 새로운 규제를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어 업무담당자로서 안타까웠던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 본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용품 및 생활용품에 프탈레이트, 폼알데히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등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된 기저에는 그 동안 이루어진 두 차례의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반대와 관련하여 반도체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유통량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량조사는 국가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거나

각 기업체가 법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화학물질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한 환경부의 야심찬 발걸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관련부서는 과거 시행된 유통량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조사 자료의 온라인 보고, 배출량과 제출시기 일치 등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동영상 교육, 상담인력 배치 등 기업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교육과 더불어 각 사업체의 능동적인 참여는 신뢰성 있는 화학물질 유통량 자료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3)